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월 31일 (제83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첫사랑

첫사랑을 해봤는가? 누구에게나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있다. 물론 나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아쉬운 마음에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함께 있었고, 상대가 보내온 편지가 닳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던 일, 답장을 쓰느라 애꿎은 편지지를 수없이 구겨가며 밤을 새웠던 일, 그 사람 밖에 내 머리 속에는 없었던 그 시절, 그게 첫사랑이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기억하는가?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고, 한 시간 기도 했나 싶었는데 두 시간이 훌쩍 지났고, 예배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고, 주일은 왜 그리 늦게 오는지... 설교말씀이 끝보다 더 달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기만 하던 시절, 주님과 첫사랑은 황홀했다. 내가 낮았을 때 나를 높이셨고,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 먹이셨고, 죄인인 나를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찬송대신 불평이 가득 찼고, 성경을 하루 한 장 읽는 것이 힘들고, 예배시간은 왜 이리 길고, 왜 박수는 그렇게 많이 치라는 건지, 왜 하필 내 옆에 노숙자는 앉아서 뉘는 나는 건지, 왜 목사님은 설교시간에 나만 패는 건지... 다 첫사랑이 식어서 생긴 증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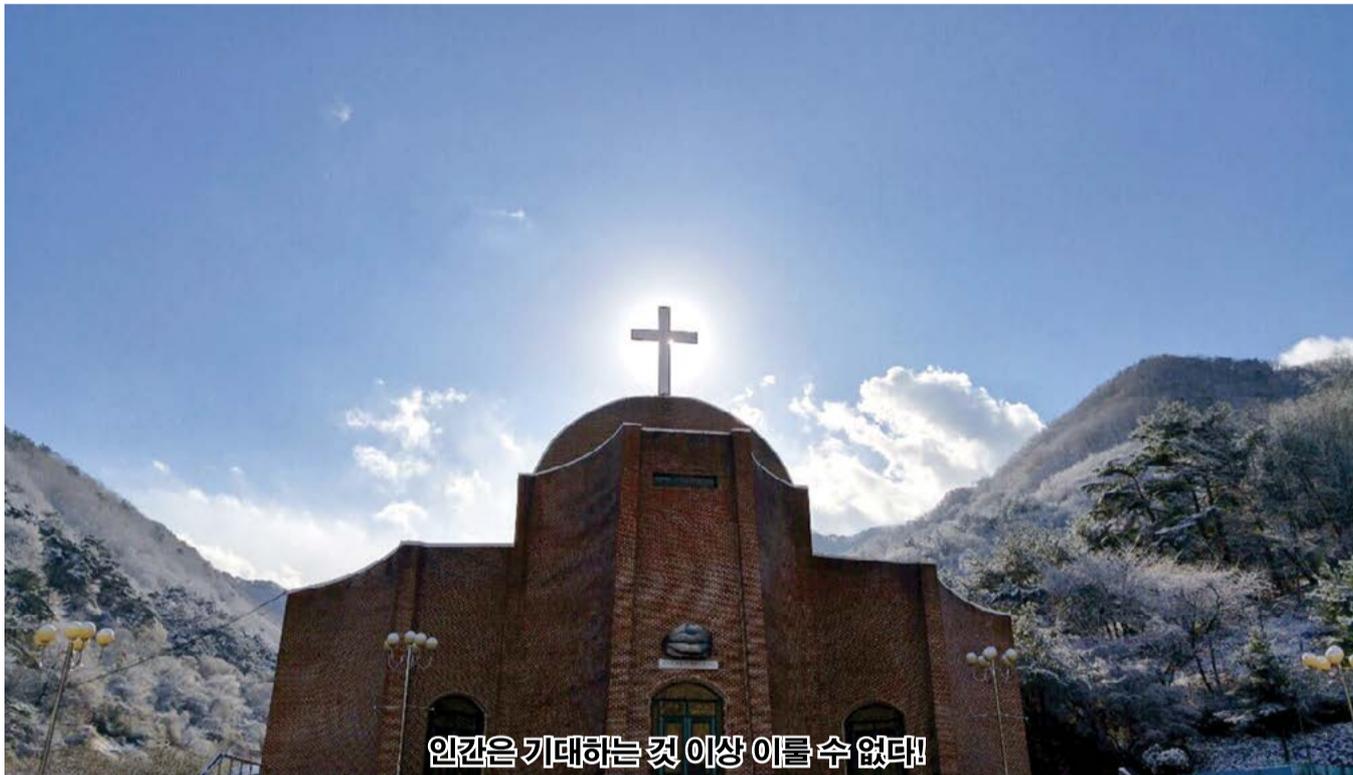
그러나 첫사랑을 잃으면 이별뿐이다. 가족과 직장도 이별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별해야 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췌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회복(回復),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사는 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사는 길 또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가정이 사는 길 역시 첫사랑 회복에 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목적지가 없으면 출발할 수 없다

2016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실천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타성에 젖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동일하게 지나간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5:45).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이 있었다. 생각 속에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

이루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우물에서 송충 찾는 격으로 조급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여유가 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다.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간다면, 인간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먼저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입니다. 누구나 잠을 자면 꿈을 꾸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려면 남모르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



인간은 기대하는 것 이상 이룰 수 없다!

가 말로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 즉 올해 내 삶을 계획하지 않고 가는 것은 망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마다 작심삼일을 하는데 올해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목표가 있어야 달성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야 자동차든 비행기든 배든 갈 수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란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항, 항만, 도로, 통신망 등의 기간산업을 말한다. 이를 잘 구축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도 전략, 전술이 있어야지 무조건 뛰어들면 되겠는가. 계획 없는 출발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목적지가 없는 배가 좌초에 부딪쳐 침몰하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도

하다 못하면 내 자식이, 그도 안 되면, 내 손자가 그렇게 세대를 이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인류사에 획을 그은 대토목공사들 또한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지속한 결과들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념은 인간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이끌어낸다.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들, 곧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남극을 탐험하며,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달나라, 화성, 목성, 나아가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 등, 인류가 이루어낸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말해준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작은 작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생각이다. 생각의 작은 불꽃이 열정의 기름과 만나 화염을 일으키니

다. 운전수가 핸들을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 차는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나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버리면 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내비에 찍고 핸들을 움직여 가속페달을 밟을 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시도가 있어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이라는 결과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새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시간은 또 어김없이 지나간다. 후회보다 아픈 것은 없다지 않은가? 작심 3일이라도 좋다. 될 때까지 계속 작심하는 거다. 그 작은 출발이 당신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월 첫주부터 금요일예배가 수요일예배로 바뀝니다
장소: KBS 88체육관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3:13~22)



What can I do for you?

지혜로운 자는 도움을 요청한다

“What can I do for you?(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외에 나가면 제가 제일 먼저 받는 인사입니다. 그 쪽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상시에 연락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프런트 데스크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해라, 요청해라. 내가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이 필요해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하신 것은 언제나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내 힘이나 내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눅18:27)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과 만민을 들어서, 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요청하기를 주저합니까? 하나님 입장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아예 청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봐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 입장이나 형편을 봐주며 떼쓸디까? 부모야 어떠한 막무가내로 조

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을 피조물이 봐드린다고 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린다면 우습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늦은 밤 친구에게 보리떡을 구하러 간 자가 체면을 생각지 않고 강력히 요청했기에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들 것을 메고 갈 것을 친구에게 요청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체면을 차렸다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아닥사스다 왕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 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

구입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택해 관직을 주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에게 있어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 달가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금식기도를 마친 후 과감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체면치레 하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아서 아예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도전했고, 수차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결국 재판관의 도움을 받아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그를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서 그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건 안 되고...’ 라며 스스로 판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통당하며, 문제를 평생 껴안고 살아야지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히1:14). 부린다는 것은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함구하고 있으니 천사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다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지력이나 재력이

는 자, 권력자를 보내사 저를 돕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100% 도와주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지사, 시장 등 권력 있는 자들을 보내 경비와 경호는 물론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해주십니다.

30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못 이끌어갑니다. 제게 30대 기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3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주일 오전예배는 물론 오후 3시 은사예배를 3시간씩이나 인도해도 거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해놓으셨다가 도움을 청할 때 천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고전2:9).

오래 전, 파주의 최 장로님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요. 저에게 상담을 왔기로 작정기도를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40일 작정기도 마지막 날, 최 장로님

입에서 ‘가봐라, 가봐라’는 방언 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사둔 땅에 나가보니 어느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람이 “이곳에 건물 집시다.”라고 대뜸 말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내가 설계사인데 임대되면 그때 돈 받겠다.”고 했고, 그의 귀뜸으로 알게 된 파주의 수전노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 그 분에게서 돈을 끌어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전노가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부모자식 간에 무슨 체면인가?

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요? 도움을 요청하니깐요.

6·25때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기에 지금이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도탄에 빠졌을 때 IMF에 도움을 청했고, 경제개발도상국이던 시절, 다른 나라에 차관을 요청해서 오늘날의 경제가 이룩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때문에 5차 회담이니 6차 회담이니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도와줄 겁니다. 농사를 짓습니까?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술과 지원금을 얻게 됩니다. 학비가 모자라니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세요. 국가 제반시설이나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줄 것입니다. 급할 때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경찰이 달려와 도와줍니다. 경찰서 앞에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들딸에게도 도움을 청하세요. 나이 들어 자식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혼자하려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독불장군은 없다 서로 협력해야 산다

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들에게 물어보니 손주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에 있다가 엄마 보고 싶으면 새벽이든 말든 가겠다고 울어댄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저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사가 얼굴에 피부병이 돌아서 텅텅 부어 올랐나 봅니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거나 찾아와 안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제 간에는 ‘이런 일로 바쁜 신 목사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병원에 다녔는데, 되레 부작용이 난 겁니다. 우연히 그 교구 전도사가 제게 상담을 왔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권사에게 전화를 해서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왜 내 형편을 봐줍니까? 아프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안 아프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럼요, 제 형편도 봐줄 게 없는데 하

주일은사집회

시간: 매주일 오후 3시~6시

장소: KBS 88체육관

문의 02.533.9191

::객원칼럼::

::겨자씨만한 믿음::

옛 바퀴 먹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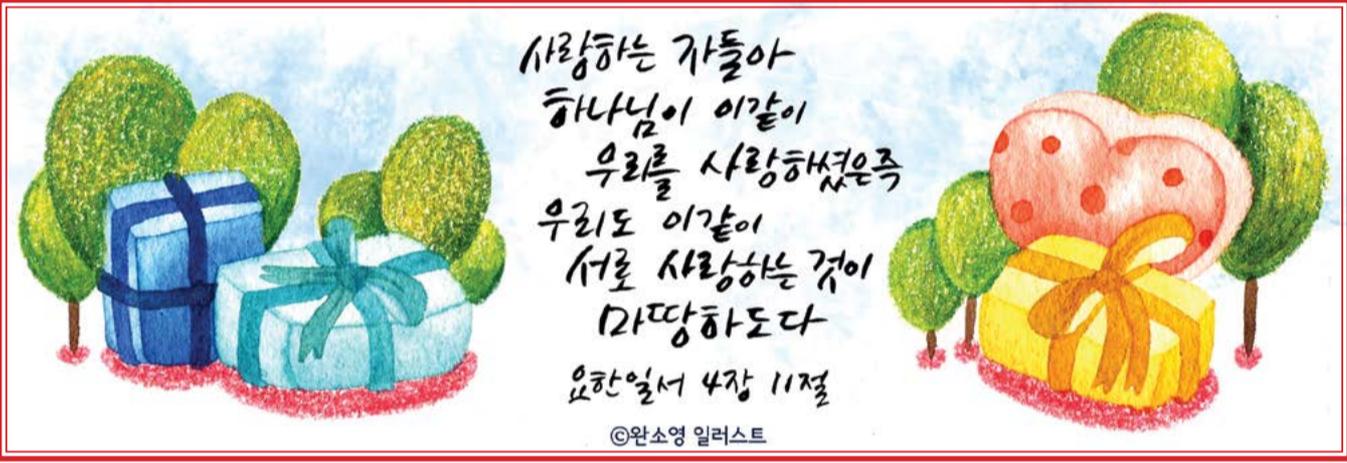
어릴 적, 먹을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에 옛만큰이나 훌륭한 간식거리는 없었다. 가락엿, 팥공엿, 울릉도 호박엿, 몸대추엿 등, 옛 장수 아저씨의 좌판에는 온갖 진귀한 엿들이 한 가득이었다. 찰칫거리는 가위 소리와 함께 옛장수 아저씨의 구성진 창가 소리가 들릴라 치면 동네 꼬마들은 순식간에 구루마(손수레)를 에워쌌다. 행여 옛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마냥 하루 종일 따라다녀 봐야 알짬없었다. 한 입 맛이라도 보려면 하다못해 철사나 전선 쪼가리, 찌그러진 냄비 뚜껑이라도 가져가야 했다. 어느 봄날이었다. 겨우내 보이지 않던 옛장수 아저씨가 오랜만에 동네 어귀에 찾아왔다. 친구들은 언제 모아두었는지 이것저것 쇠조각들을 가져다가 엿을 바퀴 먹었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자니 자꾸 군침만 돌았다. 하지만 마땅히 가져갈 게 없었다. 그 때였다. 곤로(석유풍토) 위에 있던 범랑냄비가 눈에 들어온 것은. '저것도..., 바퀴주실까?' 기우였다. 아저씨는 꺾꺾 꺾 웃으시더니 엿을 한 보따리나 싸주셨다. 정말 옛장수 맘 대로였다. "고놈, 참 푹푹하게 생겼네. 이걸 네가 마음에 들어서 더 주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더 가지고 오렴."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눈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정말 겁나게 맛있다. 범랑냄비, 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었다. 어머니께서 '그릇 계'를 들어 몇 달 만에 장만하신 귀하다귀한 꽃무늬 냄비였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 때 그 시절 범랑

냄비가 그렇게 귀한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것도 모르고 옛가락 몇 조각에 냄비 바퀴먹고 말았으니... 다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요즘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을 종종 대한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직분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세상 것, 자기 편한 대로 옛 바퀴 먹는 사람들 말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고 왜 그렇게 강조했던 걸까? 알아야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옛 바퀴 먹지 말라!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 예수께선 십자가에서 피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다. 충성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셨다. 새해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번 한파와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었다. 모든 항공기가 결항되어 약 8만 명의 여행객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제주공항의 체류객들은 종이박스를 깔고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견뎌야 했다. 그러나 날이 풀리면서 42시간 만에 운항이 재개되어 순차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살다보면 힘든 일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유대 경전 주석서 미드라쉬에 나오는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 궁중의 보석 세공인을 불렀다. 그리고 그 세공인에게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

게 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명했다. 솜씨 좋은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문구를 적어야 할지 몰랐다. 반지만 만들어놓고 고민을 하던 중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였다. 솔로몬 왕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를 알려주었고, 세공인은 그 문구를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바쳤다. 지금의 고난도 지나간다. 나쁜 상황도, 어려운 여건도 곧 지나갈 것이다. 육의 고난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고난도 지나갔듯이.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입술을 지켜 육처럼 갑절의 복을 받자. 기다림! 꿈이 있는 자의 특권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신앙논객::

::귀를 기울이세요::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올해 2016년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직(正直)'과 '진실(眞實)'이란 두 말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몰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에게 정직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자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초부터 단상 맞은 편 위쪽에 예배 때마다 걸리는 플래카드를 보고,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는 슬로건을 영어로 번역한 'Being truthful to myself and faithful to others'라는 문장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는 문장을 제 짧은 영어실력으로 직역하면, 'Let's be honest to myself and be faithful to others'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의 의미로 흔히 쓰는 'honest'라는 쉬운 형용사 대신 'truthful'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truthful'도 '정직한'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쪼개 보면 'truth(진실, 진리)+~ful(~이 가득하다)', 이렇게 두 의미가 합쳐진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正直)'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풀면 '바르고 곧은'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 정도를 간다는 의미이지요. '나에게 정직하라'는 말을, 내 안에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가득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곧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억지 일까요? 지난 1월 11일에 있었던 시무식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한 자리에 모인 전국의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Faith(믿음, 신뢰)+~ful(가득하다) to others...'.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남에게 진실하자'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난 널 믿어.", "그 친구는 믿을 만하지." 저는 언제쯤이면 이런 좋은 소문만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로 가득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래서 성도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로 성장해가는 2016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찬송에 담겨진 하나님 경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hymn)로,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입니다. '찬양(讚揚)', '찬미(讚美)'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찬송 악보에 담겨진 뜻을 아십니까? 5선지의 악보에서 '도레미파솔라시'의 음들이 있는데 이 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도레미파솔라시'는 고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약 1,000년 전까지의 악보에는 4선으로 된 악보 위에 '네우마'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음표만을 찍었을 뿐, '도레미파솔라시'와 같은 음계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음악가 구이도 다레초(Guido d' Arezzo, 995~1050)라는 사람이 성가대가 음을 확실히 잡게 하기 위하여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성가인 '성 요한 찬미가'라는 노래를 가지고 음계의 명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라틴어 가사의 첫 머리인 우트(Ut), 레

(Re), 미(Mi), 파(Fa), 솔(Sol), 라(La)에 시(Si)를 첨가하고 우트(Ut)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란 뜻의 Do(Dominus)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Do)는 하나님(Dominus), 레(Re)는 울림 및 하나님의 음성(Resonance), 미(Mi)는 기적(Miracle), 파(Fa)는 가족 및 제자(Famille), 솔(Sol)은 구원 및 하나님 사랑(Solution), 라(La)는 입술(Labii), 시(Si)는 거룩(Sanctus), 도는 똑같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기본 음계가 되는 도미솔은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음계를 한 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서인지 우리는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요즘 주일 4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나고 경내가 편안한 역사를 체험합니다(시147).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사43:21).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뛰었습니다

1985년 5월 26일, 17대 종가집에서 우상만 섬기던 노귀자(본명)가 철산에루살렘교회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달동네 골방으로 이사 가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3년을 누워있으면서 몸무게는 38kg까지 내려가고, 늘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의 전도로 철산에루살렘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시장 통같이 정신없는 모습에 이단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순간 죽고 싶은 생각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꽃도 방실방실 웃고, 나무도 나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이 예수에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미치도록 좋아서 목숨 걸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에 불이 타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심지어 꿈에서까지 매일 전도만 하였습니다. 온 동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할렐루야', '미친년', '돌아아' 등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년을 쫓아내야한다', '우리 집 앞에서 전도만 하고 있으니 집이 안 팔린다', '전세도 안 나간다', 욕도 많이 먹고 전도한 분의 남편들이 찾아와 우리 아내를 미치게 했으니 우리가 정 책임지라고 샅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동네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빠져 나가니까 이단이라고 자기네 교회에서 새벽기도, 저녁기도도 못

하게 했습니다. 다른 대형교회 조장, 구역장들이 관광버스 한대가 짝 차게 우리 교회 철야에 참석하다보니 그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못 가게 차 앞에서 지키고 서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미쳐있다 보니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다녀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못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혼하더라도 한번만 기도원에 같이 가보고 이혼하자고 설득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3년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들어 주시어 남편을 구원해주셨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 같이 예수에 미쳐서 암환자, 중풍환자들을 업고 교회에 모시고 다니고, 기도원 식당봉사를 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 습니다. 지하철 노방전도를 다니고, 집집마다 전도할 사람의 아이들도 봐주고, 이삿집도 같이 나르고, 반찬도 해가며 우리 교회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교회만 온다면 자존심 버리고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잠을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죽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이 좋았고 사람이 좋아서 손발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한 여자로 인하여 제가 있던 동작구는 부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전도한 분 중에 주의 종

12명이 나왔고, 불입이던 사람 7명이 이를 가졌습니다. 조장 구역장들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예수중심 1호 기도처가 동작구에 생겼고, 300명의 성도가 모일 정도로 부흥되었습니다. 이후 흑석기도처, 대방기도처, 동작2기도처까지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3월, 꿈속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88체육관 단상에서 저에게 상을 주시면 서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시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일날 새 신자를 모시고 안수를 받는데 이시대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시키실 거면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교구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양재교구로 보내주셨습니다. 막상 와보니 전설의 고향 같은 곳이었 습니다. 장판은 찢어져있고 커튼은 원래 무슨 색인지 모를 정도로 찌들어 있었고, 문은 다른 성전에서 수리하고 버린 합판을 주워 와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빛도 500만원이 있었고 성전의 차는 폐차 직전이었습니다. 성도는 10명 정도 계시는데 치매와 중풍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소리 지르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성전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맞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혀서 머리가 한 움큼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모여 항상 싸움이 나고, 경찰이 매일 출동하고, 서울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몇 개월을 하다 보니 도저히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하겠다고 하였더니 성령께서 '네가 못하겠

다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1년 동안 집에도 안가고 기도처에서 먹고 자고,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우거지를 주어다가 날마다 모시고 식사대접 해드리고 섬기고 사랑해드렸더니 귀신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만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치료되어 봉고차 운전봉사를 하고, 알콜중독자가 술도 끊고 직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의사가 하는 말이 혈소판이 거의 없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쉬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 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천국가고 순교하는 것인데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내 영혼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 가지 병을 고쳐 주셨고 만 가지 축복도 주셨습니다. 최고 일꾼 권사님, 조장님들이 오셨고, 성전도 수리하고, 차도 사고, 빛도 갠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무데도 쓸데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30년을 같이 왔다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한 목회길, 넘치는 은혜 잊지 않고 왔기에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목사님 30년 가시는 길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30년을 따르려 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교회 양재교구 주향기 전도사

::내가 매일 기쁘게::

인생의 목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소소한 것부터 원대한 것까지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시작으로 계획한다. 나 역시 새해를 맞아 몇 가지 다짐을 하였다. 매년 세우던 계획들을 다시 적어본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조절과 운동, 매일 성경 읽기 등 해마다 연초에는 열심히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얼렁뚱땅 넘겨버린 것들이다. 그래도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격려한다. 목사님 말씀 따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을 기도해본다. 올해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기에, 그간의 계획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새해 계획이 있다. 이 다짐은

201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지속될 다짐이다.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실천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다짐은 바로 인내와 온유이다. 몇 해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새해 메시지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 '별꼴을 얻으려거든 별통을 발로 차지 말라',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 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다. 때때로 그 말씀을 되새기며 화를 참아보려고 했지만,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을 고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는 하였다. 그런 내가 인륜시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결혼을 한 달 앞둔 무렵이었다. 과중한 업무와 결혼 준비로 지쳐 있던 중에 사소한 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중한 가족들을 여러 차례 힘들게 하였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그 때, 귀한 걸음을 해주셨던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인내하며 인자한 아내가 될 것을 간곡하게 권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은 내 모습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로 시의적절한 것이었고 앞으로의 내 삶과 신앙생활의 좌우명이 될 말씀이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잠 19:11)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인내와 온유를 힘써 행하고 노력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2016년의 새해 다짐이자 이제 시작될 내 인생의 목표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